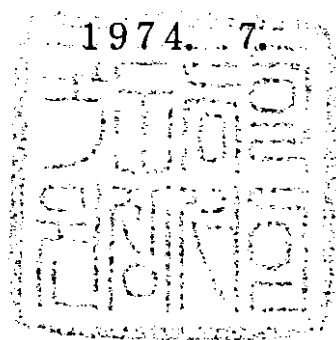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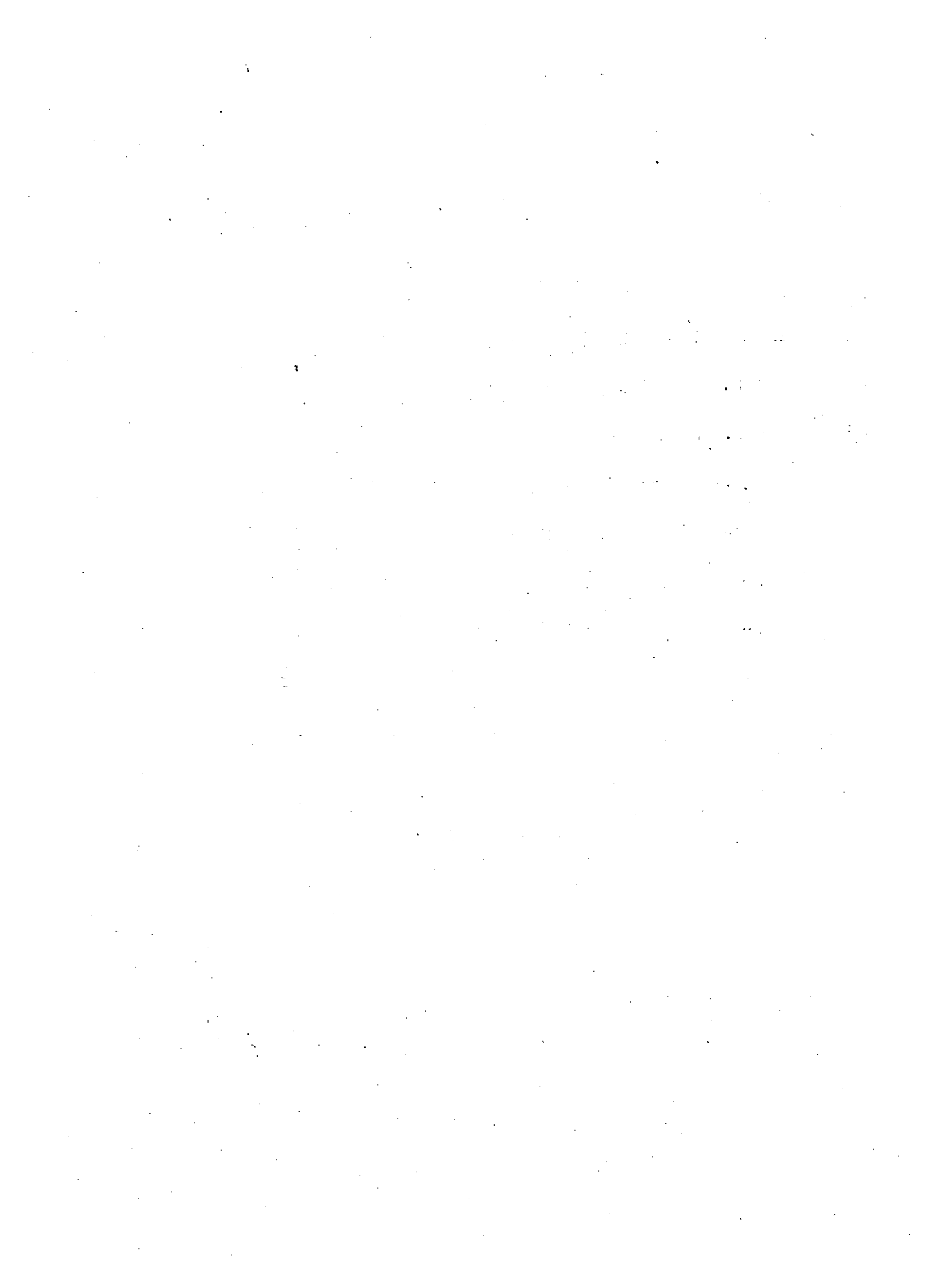
研究機關：民族統一促進會

研究責任者：金 載 浩



## 目 次

一. 第二次世界大戦과 八. 一五解放 .....	3
1. 韓国分断과 三八度線 .....	4
2. 六. 二五의 慘劇 .....	11
3. 民族統一이 實現되지 못하는 理由 .....	27
4. 祖国統一의 必然性 .....	37
二. 獨逸의 統一政策 .....	43
三. 우리의 民族統一成就를 위한 戰略 .....	53



## 一. 第二次 世界大戰과 八·一五解放

曠古未曾有의 一大慘事이었던 第二次世界大戰은 國際民主陣營의 勝利로 끝났었다. 獨·伊·日 同盟三國의 國際 파씨즘을 反對하는 이 世界大戰은 進歩的인 解放戰爭의 性格을 띠는 것이었다. 이 戰爭의 結果로해서 殘忍無道한 獨逸의 나치즘 伊太利의 파씨즘 日本의 軍國主義 卽 搦을 極했던 野蠻的인 國際 파씨즘 勢力은 完全히 打倒되었다. 反 파씨즘戰爭인 이 世界戰爭의 結果로해서 獨·伊·日 파씨즘 同盟三國의 支配下에 있던 여러民族이 解放되었을뿐 아니라 帝國主義的 壓迫과 榨取下에서 呻吟하던 亞細亞와 亞弗利加의 여러民族들이 自由와 解放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三十六年間을 殖民主義的 壓制下에서 呻吟하여왔던 우리韓民族이 暴惡한 日帝의 기반에서 벗어나 偉大한 八·一五解放을 맞이하였음도 美·英·소三國을 中心으로하는 反 파씨즘 民主主義聯合戰線의 勝利의 結果였던 것이다.

第二次世界大戰에 際하여는 共產主義 蘇聯은 美·英兩國과 함께 反 파씨즘聯合戰線의 主要成員으로 되었을뿐 아니라 強大한 나치獨逸과 國際파씨즘을 打倒하는面에서 美國과 함께 主導的決定的役割을 하였다. 이 大戰의 過程에서 蘇聯은 그외 붉은 軍隊가 占領한 東歐諸國을 마침내 共產化하는데 成功함으로써 戰後世界의 政治版圖와 努力關係를 크게變更시켰다. 그리고 空前的으로 大規模的이고 가장 切實한 慘劇이었던 이 世界大戰에서 가장 큰 物質的力량을

發揮한 나라는 美國이었지만 가장 큰 人的物的인 犧牲을 當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蘇聯이었으며 따라서 共產主義 蘇聯은 그의 甚大한 人的物的인 犧牲을 代價로해서 戰後諸問題處理에 있어서의 強大한 發言權을 行使할 수 있게되었다. 우리의 韓半島問題를 비롯한 여러가지 主要한 戰後問題의 處理가 複雜 微妙하고도 困難을 極하게끔 되지않을 수 없었던 理由는 實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 1. 韓國分斷과 三八度線

一九四三年 十二月一日 美·英·中 三國의 首腦가 發表한 宣言-「카이로宣言」-에서는 韓國問題에 對하여 이렇게 言及하였다. 「三大同盟國은 日本國의 侵略을 阻止하고 또한 그를 罰하기 爲해서 今次의 戰爭을 行하고 있다. 日本國은 暴力 및 暗害으로 略取한 一切의 地域으로부터 追放되어야 한다. 前記三大國은 韓國人民의 好轉狀態에 留意하면 얼마後 韓國은 適當한 時期에 (in due course) 自由 獨立國家로 되어야 한다」고 여기서 「適當한 順序를 밟아서」라고 翻譯할 수 있는 「인·듀우·코오스」라는 語句를 使用하고있는것은 美·英의 指導者들이 亜細亞의 解放民族들은 完全한 獨立主權을 獲得行使하기 爲한 相當한 訓練期間이 必要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一九四三年 二月二十八日 「테에란」會談當時 스탈린은 韓國의 長期間의 大國信託統治를 거쳐야한다는 「루즈벨트」大統領의 見解에 對해서 同意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一九四五

年 二月 美·英·蘇 三國首腦가 모인 「알타」 會談에서는 韓國의 將來問題에 關한 合意文書를 남겨 놓지 않았지만 「루즈벨트」와 「스탈린」사이에 (一) 韓國에 있어서의 多數國家에 依한 信託統治를 實施할것 (二) 韓國에 外國軍隊를 駐屯시키지 않을것 등의 두가지 點에 關해서 諒解가 成立되었었다고 한다.

一九四五年 八月六日 最初의 原子爆彈이 広島에 投下되고 뒤이어 九日에는 第二彈이 長崎에 投下되었다. 이리해서 日本의 降伏이 앞당겨질것이 豫見되자 八月 八日 蘇聯은 서둘러서 對日宣戰敍布告를 하였다. 이때에 스탈린은 만일 宣戰布告以前에 日本이 降伏을 한다면 戰後問題處理에 있어서의 蘇聯의 發言權은 制約을 當하게 되리라는 것을 念慮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宣戰布告 다음날인 八月九日에는 「스탈린」은 벌써 그의 大軍을 濠州와 北韓地域에 侵入시키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서 「모스크바」를 訪問하였던 애버릴 . 해리먼 大使는 트루먼 大統領에게 蘇聯이 過當한 要求를 하여 오기前에 美軍이 極東地方과 韓國을 占領하여야 하며 蘇聯軍의 韓國占領은 이를 默認하지 말아야 한다고 主張하였었다. 그러나 先見之明이 있는 해리먼 大使의 이와같은 忠告는 無視되고 말은 셈이다. 八月十日에 日本이 降伏意思를 「스위스」를 통해서 傳達해 오자 美國側에서는 三八線以南의 日本軍은 美國에 以北의 日本軍은 蘇聯軍에 降伏해야 한다는 訓令草案이 美國務省 國防調整委員會에서 討議되고 十二日부터 十四日사이에 이草案은 參謀總長의 最格的檢討를 거쳐 마침내

大統領令으로 公布되었다. 이訓令의 內容은 蘇聯政府에 即刻通知되었으며 蘇聯은 異議없이 이를 受落하였다. 美國의 龐大한 軍事的 經濟的援助에 힘입어서 무서운 強敵 나치獨逸을 打倒할 수 있었던 스탈린은 이問題를 가지고서 美國外의 摩擦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던것이다.

트루먼大統領은 그의 回顧錄에서 美國政府의 이와같은 措置는 日本의 突然한 降伏에 依해서 생긴 真空狀態를 메꾸기 爲하여 應變的으로 取해진 臨時措置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스탈린」이 韓國에 對한 信託統治案을 承認한 바있었던 만큼 蘇聯軍의 北韓占領은 어디까지나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위한 臨時措置에 不過했었다는 點을 強調하는 同時에 美國으로서는 韓國의 長久한 分割을 決코 念頭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辯明하고있다. 트루먼의 이와같은 辯明이 一理가 없지않음은 勿論이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當時 美國政府가 韓國問題에 對한 充分한 研究와 準備를 갖추고 있지못하였을 뿐 아니라 스탈린의 膨脹主義政策에 對한 正確한 認識을 갖고 있지못하였으며 따라서 루즈벨트 및 트루먼과 그의 政府가 韓半島問題의 處理에 있어서 하나의 重大한 過誤를 犯하지않을 수 없었음은 否認될 수 없는 事實일것이다.

이윽고 우리의 友邦美國은 三八線을 撤去하여 韓半島問題를 올바로 解決하기 爲한 努力을 試圖하였다. 우리가 解放을 맞이한 그 해인 一九四五年 十二月下旬 美·英·蘇 三大國外相들은 모스크바에 모여 韓半島問題의 解決方案을 마련하였는바 「韓國問題에 關한 모



스크바 『三相會議決定』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 三相會議決定의 核心은 要컨대 우리 韓國을 五年間 信託統治(그 當時 北韓에서는 『信託』이란 用語代身에 『後見』이란 用語를 썼음→下에 두기로 하되 이 期間에 있어서 美·英·蘇)等 諸國은 우리나라가 完全한 自主獨立國家로 發展할 수 있게끔 積極的으로 指導 協助 支援한다는 點에 있었다. 三相會議에서 決定된 『信託統治』란 것은 過去의 帝國主義的인 植民地統治와는 全然性格을 달리하는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部の 右翼政治人들은 만일 信託統治案을 받아 들일 경우에는 우리民族이 또 다시 過去와 같은 悲慘한 植民地的處地로 轉落하게 되리라는 듯이 民衆을 向하여 悲憤한 語調로 絶對하였으며 愛國純情으로 가득차있는 우리의 大多數 民衆은 가법계도 이에 呼應雷同할 수가 있었다. 이리해서 이른바 反託運動은 한때 遼原의 불길과도 같이 全國을 휩쓸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當時 愛國者로서의 우리들은 單純素朴한 感情의 捕虜가 됨이 없이 民族의 運命과 直結된 이 『託治問題』를 冷徹하게 深思熟考하고 民族 全体를 爲하는 立場에서 이를 果敢하고도 正當하게 處理하였어야 옳았을 일이다.

不必要한 誤解를 避하기 爲해서 一言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우리는 『反託』을 無條件 不當視하고 나무라는 立場에 있지는 않는다. 도리어 反對로 우리는 『統治』를 反對하는것은 民族感情上 當然한 일이었다고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同時에 우리는 民族運命과 關聯된 重大한 問題는 感情에 依해서가 아니라 冷徹한

理性에 依해서 判斷되고 處理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託治反對』를 나무라는것이 아니라 이 問題와 關聯하여 民族이 左와 右로 『贊託』과 『反託』의 두갈래로 갈라졌던 事實을 슬피한다. 勿論 民族 全體의 이름으로 『託治』를 反對하고 『即時獨立』를 要求하는 方向에서 國土統一問題의 解決을 試圖하여 볼 수도 있었으며 또 이것은 名分이 서지않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爲해서는 民族이 적어도 이 問題에 關한 限에 있어서는 分裂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했을것이며 하나로 뭉쳐진 全民族의 強烈한 意志를 가지고서 責任있는 美·蘇 兩大國에 강한 壓力을 加할 수 있어야 했을 것이다. 다만 問題는 그 當時에 있어서의 國內의 政治的 現實에 비추어서 이것이 可能한 일이었겠느냐 하는 點에 있을뿐 아니라 그 當時의 國內情形上 이것은 不可能한 일이었음이 틀림없다고 斷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國土統一問題에 關하여 全體 民族이 統一된 意志를 가지고서 三相會議決定의 廢棄乃至 修正을 要求할 境遇에 있어서 까지도 그것이 美·蘇 兩大國에 依해서 受諾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點에 큰 疑問이 없지 않다고 할것이어늘 하물며 民族이 『贊託』과 『反託』으로 兩分되어 極甚한 摩擦과 混亂이 빚어지고 있던 그 當時의 現實的 狀況下에서 美·蘇 兩大國이 三相會議決定을 廢棄乃至 修正하는데 合意하려 하는것을 期待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韓半島를 南北으로 分割占領하고 있던 美·蘇 兩大國의 合意와 同意가 없이는 38 線의 撤去 即 國土統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

는 明明白白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推察컨대 古下나 雪山과 같은  
見識 높은 指導者들은 그 當時에 있어서의 内外情勢에 비추어서  
韓半島 問題에 関한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 即 5個年 期限附의  
『信託統治』를 받아 들이는것이 国土와 民族의 南北兩斷을 防止하  
는 唯一의 길이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들 自身の 判斷과 結論을  
내리었던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을 따라 韓國에 統一臨時政府를 樹立하기  
爲한 美·蘇 共同委員會가 1946年3月과 1947年5월에 2面に  
 걸쳐 開催되었지만 兩國의 主張이 對立한채 아무런 合意도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 核心的인 論争點은 所謂 協議對象問題에 있었는  
바 蘇聯側은 反託運動에 參加한 右翼의 政黨 및 社會團體들을 『協  
議對象』에서 除外할 것을 主張하였음에 反하여 美國側은 右翼의  
 여러 政黨이나 社會團體들도 當然히 『協議對象』에 包含시켜야 한다  
고 主張하였으며 美·蘇 兩側은 서로 自己側 主張을 固執하다가  
 끝내는 共同委員會事業을 完全히 破綻시키고 말았다. 設使 한때는  
 反託運動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三相會議決定을 支持하는 方向으로  
 態度를 바꾸기만 한다면 左右翼과 中間을 莫論하고 各階各層을 代  
 表하는 모든 政黨과 社會團體를 『協議對象』에 包含시켰어야 옳았  
 을 일이다. 右翼反託勢力이 美·蘇共委事業을 破綻시키는 면에서  
 적지않은 役割을 遂行하였다는 것은 世間이 周知하는 事實이거나와  
 責任있는 當事者인 美·蘇 兩側도 共委事業을 期必코 成功시켜야  
 하겠다는 굳은 決意와 熱誠을 갖고 있지 않았음이 또한 事實일것

이다.

美·蘇·共委事業이 失敗로 끝나자 美國은 韓國問題를 國際聯合으로 옮겨갔으며 1947年 가을에 열린 國際聯合總會는 韓國에서 國際聯合의 監視아래 民主主義的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해야 한다는 決議를 採択하고 이를 따라 南韓地域에서는 1948年 5月 15日 總選舉가 實施되었지만 共産側의 拒否로 말미암아 北韓地域은 이 選舉에서 除外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結果로 同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었으며 뒤이어서 同年 9月 北韓共産集團은 所謂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宣布함에 이르렀다.

國際聯合의 決議를 따라 正當한 節次를 거쳐서 誕生하였고 또 國際聯合의 合法的承認을 받은 大韓民國이 法的인 正統性을 所有함은 當然하다손 치더라도 38 以北의 우리疆土에 또 하나의 政權이 實在하게 되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리해서 新羅統一以後 單一民族으로서의 連綿한 生을 누려온 우리韓民族은 南北으로 나누어져 完全히 異質的인 두個의 政權과 體制下에서 相互間의 接觸과 交流를 拒否당한채 各各 相異한 生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民族의 큰 不幸이며 큰 悲劇이 아닐 수 없다. 同族相殘의 6.25 慘變에서 그 極端의 形態를 示顯한 民族의 大悲劇은 實로 여기에서 싹뻗던 것이다.

三相會議決定을 實踐하기 爲하여 열렸던 美·蘇共委가 失敗로 끝남으로써 國土와 民族의 南北分斷을 防止할 수 있는 機會는 消失되었다. 그리고 美·蘇共委事業이 失敗하지 않을 수 없었던 理由

는 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바 하나는 各各 美国과 蘇聯을 中心으로 하는 東西兩大陣營間의 冷戰이 激化하기 始作하였다는 國際的理由이며 또 하나는 民族의 左右兩翼에의 分裂對立이 激甚하였다는 國內的理由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激甚한 民族分裂에 對한 責任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이에 對한 責任은 左右의 兩翼勢力과 그 指導者들이 多같이 져야 할 것이지만은 國際共産陣營의 總師인 獨裁家 스탈린의 指示와 命令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極左勢力과 그 指導者들이 責任의 보다 큰 部分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2. 6.25의 慘劇

北韓共産集團은 1950年 6月 25日 不意의 南侵을 敢行하였다.

이에 對하여 駐韓國際聯合韓國委員會는 『1950年 6月 25日에 開始된 北韓政權의 兵力에 依한 韓國領土侵入은 慎重히 準備된 計劃을 遂行하기 爲하여 警告없이 또한 挑發이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着手된 侵略行爲』라고 斷定하였다. 北韓의 共産集團은 平和統一提議들을 連發하고 甚至於는 6.25南侵 不過數日前에 大韓民國國會와 北韓의 『最高人民會議』를 統合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하자고 하는 提議까지 하였었지만은 그 幕後에 있어서는 南侵準備를 서두르고 있었음이 事實인 것이다.

北韓共産集團이 蘇聯의 積極的인 指導 및 協助下에 人民軍을 創設擴大하고 軍備를 擴張 強化하면서 大國的인 南侵準備를 進行시켰

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지마는 우리가 北韓共産政權의 本質과 6.25 南侵의 性格을 올바르게 把握하기 爲하여는 共産陣營의 總帥이었던 오시프·스탈린의 北韓에 對한 政策과 指導=支配方式을 正確히 理解 把握할 必要가 있을것이다.

漸次 東方에로 領土와 勢力을 擴大하여 왔었고 또 不凍港을 찾아서 南下政策을 쓰고 있던 帝政로시아가 東部亞細亞의 要衝인 韓半島에 對해서 強한 關心을 갖고 있었을 뿐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韓半島問題에 對한 干涉을 試圖하였다는것은 알려져있는 事實이다.

10月革命以後 國際적으로 孤立된 位置에서 卽 그들이 말하는 『資本主義의 包圍』下에서 『一國社會主義建設』에 沒頭하고 있던 蘇聯은 韓半島問題에 對한 積極的關心을 表示할만한 余裕를 갖고 있지못하였음이 事實이다. 그러나 用意周到한 스탈린은 第二次世界大戰이 終結하기 훨씬 以前에 벌써 韓半島問題에 對한 어느 程度의 對備策을 準備하고 있었을 것으로 推察된다.

後退하는 히틀러의 獨逸軍을 追擊하는 붉은 軍隊가 順次로 占領을 한 東歐의 여러 나라들—波蘭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東獨 等—에서 스탈린은 當該國共産主義者들로 하여금— 大概는 聯立政府의 形態下에—權力を 掌握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境遇에 있어서 스탈린이 이들 諸國에서 權力の 가장 樞要한 자리 에 올려앉힌 사람들은 거의 例外없어 所謂 『모스크바·그룹』에 屬하는 共産主義者들—卽 當該國出身의 共産主義者들로서 蘇聯에 亡命하여 多年間 스탈린의 眷顧와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蘇聯軍을

따라 大概是 蘇聯軍服을 입고서 故國으로 歸還한 사람들-이었다. 이와같이 스탈린이 붉은 軍隊에 依하여 占領된 各個國家에서 所謂 『모스크바·그룹』所屬의 共產主義者들을 權力的 자리에 올려 앉힌다는 것은 第二次大戰終結 當時 蘇聯軍의 占領下에 놓인 여러나라에서 普遍的으로 適用된 스탈린의 人事政策의 基本原則이었다. 그러면 스탈린이 이와같은 人事政策을 採擧한 理由는 무엇이엇겠는가 그 理由는 簡單하고도 明瞭하다고 할 수 있는바 多年間 蘇聯에서 亡命生活을 하면서 스탈린의 돌봄을 받고 또 스탈린式教育을 받아 왔던 사람들만이 親近한 蘇聯의 벗으로 되고 獨裁家 스탈린의 가장 忠實한 部下로 될 수 있으리라고 스탈린은 打算하였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獨裁家들의 境遇에 있어서 人材를 拔擢登用하는 最高不勳의 人事政策의 基準이 獨裁家 自身에 對한 忠誠度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古來의 許多한 實例가. 이를 証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45年8.15解放當時 北韓의 金日成은 大尉肩章을 달은 蘇聯軍服을 입고서 蘇聯軍을 따라 北韓으로 들어 왔었다. 이것은 마치 蘇聯에서 亡命生活을 하고 있던 東歐諸國의 共產主義者들이 나치軍을 追擊하는 붉은 軍隊를 따라서 各各 自己들의 祖國으로 (例컨대 「베루트」一派는 波蘭으로 「울브리히트」一派는 東獨으로) 돌아 왔던 것파도 같은 일이다.

金日成個人에 對한 極端的偶像化가 絶頂에 達하고 있는 昨來의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蘇聯亡命事實이 否認되고 그가 滿洲에서 끝까지

지 抗日武力鬪爭을 繼續한 것으로 主張되고 있다고 하지마는 獨·  
蘇가 開戰을 한 直後인 1941年 가을에 金日成이 若干名の 部下  
들과 함께 蘇滿國境을 넘어 蘇聯으로 亡命을 하였었다는 것은 諸  
種의 証憑史料에 依해서 認認될 수 있는 事實이다.

滿洲에서의 抗日武力鬪爭이 極度로 어려워진後 金日成과 그의 一  
黨이 露領으로 넘어간 것은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1941年 가  
을 이었는바 거의같은 무렵에 北滿에서 抗日 게릴러戰을 하고있던  
崔庸健과 東滿에서 亦是 抗日게릴러戰을 하고있던 金策이 各各 若  
干名の 部下를 거느리고 露領으로 넘어왔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때에 스탈린의 部下인 露西亞人들은—아마도 스탈린 自身の 指示를  
따라서—金日成 崔庸健 金策 等 3人의 게릴러部隊長과 이들의 部  
下들을 極東露領의 最大都市인 하바롭스크市에 集結시킨後 이들 亡  
命客들에 對하여 8.15當時쯤까지 約3.4年間에 걸친 스탈린式의  
政治 思想教育을 實施하였다고 한다. 南韓에서는 第二次大戰當時  
金日成이 『스탈린그라드』戰鬪에 參加했었느니 하는 風說이 一時  
떠돈 일이있지마는 아마도 이것은 根拠없는 浪說일 것이다. 遠慮를  
갖는 스탈린은 韓國人政治亡命客들을 一線戰鬪에 參加시켜 값싼  
『大砲밥』으로 供하는 愚를 犯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育成  
保護한 韓國人亡命客들을 後日 有事時 값비싼 政治的目的에 利用하  
려고 하였을 것이다.

金日成이 金日成이란 이름을 지금까지 北韓民衆앞에 公式的으로  
나타난 것은 同年 10月 14日 平壤公設運動場에서 열렸던 市民大會



회에서 었다. 이날 平安南道人民委員會 委員長인 古堂 喜晩植은 8.15 解放의 큰 기쁨을 吐露하는 훌륭한 雄辯으로써 雲集한 群衆을 感動시켰다. 古堂에 뒤이어서, 金日成은 勞動者 農民 事務員 企業家 等等 各階各層은 大同團結해서 새로운 民主國家를 建設하는 內容의 準備된 演說草稿를 朗讀하였다. 元來 古堂은 志操있는 愛國者로 알려져 있었을 뿐아니라 이날의 그의 演說이 또한 感動的인 훌륭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인 聽衆의 熱烈한 歡迎을 받았다. 準備된 演說을 읽는식의 金日成의 演說은 聽衆을 크게 感動시킬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었지만 이날 그는 抗日鬪士인 『民族의 英雄』 金日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古堂만 못하지 않은 聽衆들의 熱烈한 歡呼를 받았다. 오래前부터 抗日鬪士 金日成의 이름을 들어왔던 많은 平壤市民들은 새파란 青年 金日成을 처할 때에 若干의 疑訝心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음이 事實이지만은 當時에 그들은 同姓同名의 先輩 金日成이 있었다는 事實을 알 수가 없어으며 따라서 그들은 金日成의 『眞偽』를 問題삼을만한 余裕도 없었음이 事實이다. 如何든 推察컨대, 그 當日 스탈린은 몇 갈래의 情報루우트를 平壤市民大會의 光景을 報告받았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北韓으로 돌아온 金日成이 広汎한 民衆의 歡迎을 받고 있는 것으로 解釈하였을 것이다.

이윽고 同年 12月 金日成은 朝鮮共産黨 北朝鮮分局의 責任秘書로 任命되었으며 다음해인 1956年 2月 8日 『北朝鮮 臨時委員會』의 成立과 同時에 그는 同委員會 委員長으로 選出되었다. 이리해서

金日成은 北韓에서의 黨과 行政府의 首班을 兼任하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人事措置는 크레믈린의 主人公인 스탈린 自身の 意思와 政策을 反映하는 것이었음이 틀림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金日成을 首班으로하여 樹立된 北韓共産政權은 主要한 모든 政策을 蘇聯軍司令部(後에는 蘇聯大使館)를 거쳐서 傳達되는 크레믈린의 指示와 路線을 따라서 實施하였다. 南韓에서는 美軍政下의 政治가 잔재 『通譯政治』라고 諷刺적으로 불려진 일이 있었거니와 6.25쯤까지의 北韓의 政治는 『通譯政治』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例컨대 北韓에서 實施된 土地改革의 法令은 蘇聯軍司令部에서 下達된 露文으로된 法令草案을 文字 그대로 우리 말로 옮긴 것이었다.

그러면, 民族에게 가장 큰 不幸과 慘禍를 가져다준 6.25南侵은 어떻게 計劃되고 準備된 것이었겠는가 아직껏 많은 사람들은 金日成을 中心으로 하는 北韓의 支配의 共産集團이 『自主적으로』그렇듯 엄청난 反民族的犯罪行爲를 計劃하고 準備하고 遂行할 수 있었던 것으로 誤解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獨裁스탈린이 在世하는 동안 金日成과 그의 一黨은 그렇듯 重大한 일을 마음대로 計劃하고 遂行할 수 있는 自由와 『自主性』을 決코 許容받고 있지 못하였음이 事實인 것이다.

호루쉬초프는 그의 回顧錄가운데서 1949年 겨울 모스크바를 訪問한 金日成이 戰爭準備完了를 스탈린에게 報告하고 그의 具體的인 南侵計劃에 對한 스탈린의 諒解를 求하였음에 對하여 스탈린은 이

를 快히 諒承하는 態度를 보였기때문에 金日成은 그를 爲하여 배  
물어진 「리썬션」席上에서 極히 愉快한 氛分으로 談笑痛飲하였다고  
쓰고 있다. 蘇聯의 責任있는 指導者의 立場에서 6.25 動亂 即  
韓國戰爭이 스탈린의 計劃에 依한것이었다는 事實을 公言하기는 어  
려울 일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6.25 慘變에 對한 第一次的責任을  
金日成과 그 一黨에게 돌린다는 것은 事實과 副合하지않은일이 아  
니면 아니된다.

美國의 著名한 外交家로서 多年間 모스크바에도 駐在한일이있으며  
따라서 蘇聯問題에 對해서도 專門的見識을 갖고 있는 「애버랜·해  
리먼」大使는 그의 回顧錄가운데서 同族相殘의 悲劇이면서 同時에  
國際的戰爭의 性格을 띠고 있던 韓國戰爭은 共産陣營의 總帥인  
「요시프·스탈린」의 戰略的計劃에 基因하는 것이었음을 明白히 主  
張하고 있다. 一言而蔽元하면 上述과 같은 후르쉬초프의 說明은  
옳지 않으며 前述한 「해리먼」大使의 主張이야말로 完全히 事實과  
合致하는 것이다.

北韓의 人民軍은 1946年初에 創設되었다. 스탈린은 大鬘의 現  
代的武器 및 軍需品과 軍事顧問團을 派遣하여 이 新設된 軍隊의  
武裝과 組織과 訓練을 積極援助하였으며 이리함으로서 그는 北韓共  
産軍을 急速히 擴大 強化하여 戰爭遂行能力을 갖춘 現代의武裝力으  
로 成長시킬 수가 있었다.

스탈린은 아마도 終戰當時쯤부터 韓半島問題를 武力的으로 解決해  
보려는 計劃을 세우고서 一적어도 武力的解決이 不可避하게 될 境遇

를 予想하면서 이에 對한 本格的 準備를 進行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歐羅巴에서는 伯林封鎖措置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派에 對한 肅清計劃과 같은 스탈린의 主要政策이 失敗로 끝났으며 그 結果로 해서 스탈린의 株価와 威信은 크게 失墮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歐羅巴에서는 스탈린은 그의 名譽 恢復을 爲하여 武力行使와 같은 積極的手段에 呼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世界의 心臟部인 歐羅巴에서의 그와 같은 武力行使는 곧 第三次世界大戰의 勃發을 意味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獨裁者 스탈린은 歐羅巴에서 失墮된 그 自身の 威信을 恢復하는 길은 亞細亞의 東쪽 韓半島로 通한다고 느꼈을 상 싶다. 스탈린은 韓半島問題를 武力的으로 處理함으로서 失墮된 그 自身の 威信을 恢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亞細亞에서의 共産勢力擴大를 爲한 새로운 契機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期待하였을 것이다. 바로 그 當時 中國大陸에서는 中國共産黨勢力을 台灣으로 驅逐하고 全面的勝利를 거두면서 있었다. 그러므로 스탈린은 만일에라도 韓半島에 對한 그의 武力的 解決方策이 成功을 거두게만 된다면 韓半島에서의 이와같은 勝利는 이를 全亞細亞적으로 擴大시켜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큰 弱點을 內包하고있던 지난날의 強大國 日本까지를 共産圈內로 이끌어 들일 可能性이 없지 않다고 打算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政治的, 軍事的戰略의 觀点에서 北韓共產集團으로 하여금 戰爭準備를 서둘러하여 왔던 스탈린은 1949年6月 駐韓美軍이 撤収하고 中國大陸에서는 1949年10월 『中華人民共和國』가 樹立되고 또 1950年1月初 發表된 美國의 『에리슨·라인』에서는 韓國이 除外되는 等 國際情勢의 有利한 趨移를 滿足스럽게 바라보았으며 이윽고 그는 勿失好機라는 斷定을 내리는 同時에 金日成을 中心으로 하는 北韓 共產集團에게 6·25 南侵開始를 指示 命令하였던 것이다.

이리해서 가장 慘酷한 同族相殘의 6·25 動亂은 勃發하였는바 이 動亂의 過程을 通해서 우리民族은 物的·心的인 가장 큰 苦痛을 當하였고 人命 및 財産上의 莫大한 損害를 입었다. 그러나 不幸中多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美國트루먼政府의 果敢迅速한 行動과 유·엔의 迅速適切한 措置와 民主友邦들의 積極인 協助에 힘입어서 스탈린의 膨脹主義的 野慾을 粉碎하고 南進한 侵略勢力을 다시 38 以北으로 몰아 낼 수가 있었다는 點이다.

그러면 쉽게 輕學를 하지는 않는 스탈린이 그렇듯 誤算을 犯하고 敗北의 苦杯를 마시게된 原因은 무엇이겠는가 要컨대 스탈린은 우리의 友邦美國이 조그마한 韓半島問題 때문에 茫茫한 太平洋을 건너와서까지 亞細亞大陸에 對한 武力的 関與를 試圖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豫想과는 달리 美國의 트루먼大統領은 가장 迅速하게 韓國戰爭에의 直接的介入을 斷行하였으며 따라서 스탈린의 膨脹主義的計劃은 無慘히도 粉碎되

지 않을 수 없었다. 如何든 美國의 直接的인 武力介入을 計算밖  
에 두었다는 點에 있어서 스탈린은 千慮의一失을 犯하였던 것이  
다.

勿論 用意周到한 스탈린은 萬一의 境遇에도 對備하여 中國共産黨  
의 協助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도 하였었으며 毛澤東의  
積極的協助의 德沢으로 해서 그의 別世後 그의 後輩들은 共産側  
이 입은 軍事的 敗北에도 不拘하고 38 線을 恢復시키고 韓半島를  
6.25 以前의 狀態로 復歸시키는데 成功하였다는 事實을 우리는  
아물려서 留念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6.25의 뼈저린 經驗에서 몇가지 敎訓을 끌어 낼 수가  
있는바

첫째로 武力的方法 即 戰爭手段에 依해서는 결코 民族統一의 課  
業을 達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東西間 또는 列強間  
의 勢力關係가 完全한 均衡狀態에 있음으로써 어느 한 便이 相  
對便을 武力으로서 屈服시킨다는 것은 不可能할 터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韓國사람이 韓國사람을 치는 同族相殘의 싸움을 絶對로  
다시는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人間끼리 서로 殺戮을 恣行  
하는 戰爭行爲는 道德的 人道的 靚點에서 當然히 禁止되어야 옳을  
일이 거늘 하물며 피를 나눈 同胞끼리의 相互殺戮行爲가 道德的  
倫理的으로 許容될 수 없음은 勿論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우리의 民族統一問題는 어느 한便으로 치우치는 一方的  
解決이 不可能할 터이기 때문에 이 問題는 結局 互讓的 立場에서

妥協的 折衷的으로 相互接近的으로 다루어지고 解決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넷째로는 左右 兩極의 中間에 位置하며 民族全體를 爲하는 立場에서 能히 調整者的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前進的 中間勢力이 育成 組織 訓練 強化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섯째로 6·25 動亂 即 韓國戰爭은 激化한 東西冷戰의 產物이 있는바 우리의 民族統一問題가 올바로 解決될 수 있기 爲하여는 東西間의 冷戰이 크게 解決되고 南北韓이 各各 所屬한 國際的 勢力圈을 벗어나 民族本然의 自主的立場으로 올라 설 수 있는 그러한 客觀的 主體的諸條件이 造成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이다.

民族相殘의 6·25 動亂은 우리民族에게 큰 不幸과 災殃을 가져다 준 가장 큰 悲劇이요 慘事이었으며 이와같은 悲劇과 慘事가 絶對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은 勿論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戰爭手段에 依한 民族統一問題의 解決 - 所謂 『武力統一』 乃至 『北進統一』 을 拒否하고 反對하여 왔음이 事實이지만은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凄慘한 6·25 動亂의 進行過程에서 民族統一의 實現 促進을 爲한 하나의 有力한 契機를 捕捉할 수가 있었으리라는 事實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이와같은 契機捕捉의 好機를 놓쳐버렸다는 事實에 想到하는 同時에 이에 對한 簡單한 論理的解明을 通하여 或種의 쓸모있는 教訓을 引出하여 보고져 하는 바이다.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의 地位에 있던 맥·아더將軍은 中共軍의 參戰後 滿洲 爆擊을 敢行하고 戰爭을 滿洲로 까지 擴大시킴으로써

韓國戰爭으로 勝利的으로 終結하고 同時에 韓半島統一問題를 解決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것 같다. 或은 그는 더 나아가서 戰爭이 크게 擴大될 境遇 原子武器로 蘇聯을 擊破하며, 國際共產勢力에게 決定的 打撃을 加함으로써 終局的인 大勝利를 確保하게 될것을 希望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루먼 美國大統領은 맥·아더將軍의 이와같은 생각을 크게 危險視하였을 뿐 아니라 美國의 가장 큰 友邦인 英國의 에틀리首相도 戰爭 擴大를 크게 危懼하는 立場에서 韓國戰爭의 局地化를 爲하여 트루먼 大統領에게 強한 壓力을 加하는 등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다. 如何든 맥·아더將軍의 戰爭擴大構想은 實現 不可能한 것이었으며 同司令官의 命令을 따라 鴨綠江·豆滿江의 線까지 北上하였던 유·엔軍은 中共軍의 大挙參戰으로 말미암아 다시 後進兩下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問題 삼으려고 하는것은 유·엔軍이 38 線을 넘어서 進軍하였다던가 맥·아더司令官이 38 線以北에로의 進軍을 命令하였던가 하는 點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問題視하는 것은 北進하는 유·엔軍이 鴨綠江·豆滿江의 線까지 올라가므로써 建國 初創期에 있는 中共으로 하여금 國家安保上 重大한 威脅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 果然 옳은 일이었겠느냐 하는 點이 있다.

中共의 韓國戰爭介入動機에 關해서는 몇 갈래의 解釈이 있을 수 있다. 1950年2月에 締結된 中·蘇 相互協力條約에 關하여 協議를 할 當時에 스탈린과 毛澤東의 兩人사이에 計劃된 韓國戰爭에 關한 或種의 諒解 乃至 合意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겠느냐하는 推



測은 不可能하지 않다. 그러나 그무렵 韓國戰爭에 關한 스탈린의 計劃이 急速히 具體化하고 있었음은 事實일터 임에도 不拘하고 이를 兩巨頭 사이에 中共의 韓國戰爭介入에 關한 具體적인 協議 乃至 合意가 있지는 않았던상 싶다는 것이 보다더 有力한 解釈이다. 同年 10月2日 中共首相 朱恩來는 當時의 北京駐在 印度大使 「페너카」에게 만약 韓國軍만이 38度線을 넘어 北韓으로 侵攻할 때에는 中共軍은 北韓으로 侵入하지 않겠다고 約束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同時에 中·蘇 相互協力條約 自体가 韓半島問題와의 關聯에서 萬一의 境遇에 對한 하나의 對備策으로서의 性格을 一面 띠고 있었음은 是認될 수도 있을 것이다.

英國의 大政治家인 윈스턴·처칠은 韓國戰爭에 있어서의 유·엔軍의 北進問題와 關聯하여 그 當時 유·엔軍이 大体로 39度線과 一致하는 平壤-元山の 線에서 進擊을 停止하고 共產側에 政治協商을 提議했었다라면 中共軍의 介入을 防止하는 한便 有利한 方向에서 韓半島問題를 解決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었다. 처칠의 意見에 依하면 進擊을 停止한 유·엔軍이 平壤-元山の 線에서 堅固한 防禦線을 構築하고 그 以北을 滿洲地域과의 中間에 있는 一種의 緩衝地帶로 看做하면서 共產側과의 政治的協商을 벌렸더라고 하면 共產側으로 하여금 韓半島問題의 合理的 解決에 同意시킬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처칠의 意見이 敬聽할 만한 價値를 갖고 있음은 否認될 수가 없다.

우리는 처칠의 價値있는 意見을 若干 敷衍하여 考察해 볼 수가

있다. 39度線 以北의 地域을 - 境遇에 따라서는 38度線 以北의 全地域을 - 緩衝地帶=中立地帶로 삼는다고 할 境遇에 이 地域에 對한 統治權을 6·25 慘劇에 對한 直接的 責任者인 金日成一黨에게 다시 넘겨준다는 것은 事理에 맞지 않는 일이었을 터이기 때문에 이 地域에 對한 統治責任은 金日成一黨을 反對하는 國內派 共產主義者들을 中心으로 하는 그리고 民族主義的 傾向을 띤 共產主義集團에게 맡겨졌어야 옳았을 일이다. 만일에 일이 이렇게만 處理될 수가 있었다라면 그後 北韓과 韓半島 全域의 狀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變化한 國際的 環境下에서 權力을 잡게된 새로운 支配集團과 인텔리 大衆은 스탈린主義의 나라였던 北韓을 漸次로 修正 共產主義=民族的 共產主義의 方向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推察된다. 이와 同時에 南北韓關係에는 根本的인 큰 變化가 不可避하게 일어났을것이다. 만일에 일이 이와같은 方向에서 進行될 수가 있었다라면 우리의 民族統一問題는 아직 完全解決을 보지는 못하고 있으리라손 치더라도 이미 合理的解決에 接近하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의 完全 解決은 時間問題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事實인즉 유·엔軍이 38線 넘어로 北進을 開始하였을 當時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유·엔軍側 指導者들은 上述과 같은 切實的 知慧를 發揮할 수가 없었으며 그러므로 위에서 우리가 論理的으로 推理해 본 바와 같은 그러한 事態發展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6·25 慘劇의 進行過程에서 나타났던 큰 機會 民族統一

問題의 解決을 爲한 하나의 큰 機會는 이리해서 逸失되고 말았다.

6·25 動亂은 우리 民族에게 莫甚한 苦痛과 莫大한 犧牲을 強要하였을 뿐 우리는 슬픔과 苦難의 6·25 痛 - 祖國統一의 實現을 爲한 - 転禍爲福의 큰 機會로 삼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遺憾스럽고 恨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6·25 라는 가장 큰 民族的 受難의 經驗을 通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嚴重한 教訓을 얻을 수 있었는바 이어 위에서 言及한 바와 重複하지 않는 範圍에서 한 두가지를 더 들어 본다면

첫째로 武力的方法에 依해서는 決코 民族統一의 課業이 達成될 수 없으며 6·25 와 같은 同族相殘의 慘劇은 絶對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을 일이지만은 그러기 爲해서는 南과 北의 사이에 軍事的인 힘의 均衡이 繼續 維持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로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南과 北은 서로 相對方을 承認하고 尊重하는 立場에서 相互理解와 相互接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로 民族統一을 이룩하여 民主的 統一國家를 建立할때까지는 南과 北은 서로 接觸하고 서로 交流하고 서로 協力하고 서로 競爭하면서 平和的인 共存을 해가야 할 것이다. 北韓의 一部 集權層은 『平和共存』이란 서로 다른 國家들 사이의 關係에나 適用될 수 있는 것이지 同一한 民族 同一한 國家의 内部的問題에는 適用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論理的으로 妥當할 수 있는 主張이 아니다. 平和共存의 原則은 理念과 體制

를 달리하는 國家들 사이에 通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相異한 性格을 갖는 政治勢力들 사이에도 適用될 수 있는 것이다. 後日 民族統一이 이루어져 民主的 統一韓國이 建立될 境遇 이 統一韓國 안에서는 共產勢力 - 그때에는 이 勢力도 많은 性格變化를 하고 있을 터이지만 - 非共產勢力이 平和的으로 共存하게 될 것이며 또 事理上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넷째로 南과 北이 接觸을 하고 對話를 나누거나 나아가서 民族統一問題를 다룰 境遇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個人이나 一黨一派를 當하는 小我的立場이 아니라 民族全體를 爲하는 大我的立場에 確固히 서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리함으로써만 우리는 民主的統一祖國의 建設이라는 우리의 歷史的・民族的 大課業을 훌륭히 完遂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우리는 左翼의 事大主義와 아울러서 右翼의 事大主義를 다 같이 清算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韓國사람들의 第二의 天性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傳統의 事大主義의 完全한 止揚이 없이는 角逐하는 列強勢力의 사이에서 훌륭한 自主獨立의 民族國家를 建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53年 7月 27日 調印된 韓國休戰協定에 依擬하여 1954年 4月 제네바에서 韓國問題를 處理하기 爲한 政治會議가 開催되었다. 同年 5月 22日 同會議에서 卞榮泰外務長官은 韓國側 統一方案을 提起하였는바 이 提案의 骨子는 유 - 엔監視下에 大韓民國의 憲法節次를 따라서 南北韓에 걸친 自由選舉를 實施하되 全韓國議會의 議員數는

全韓國의 人口에 正比例하여야 하며 中共軍은 選舉實施 1個月前에 撤収를 完了하여야 하고 유-엔軍은 統一政府가 樹立되고 이것이 유-엔에서 確認되었을 때 撤収를 開始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共產側은 『유-엔監視下의 人口 比例에 依한 自由選舉』라는 것이 自己들 便에 不利하리라고 判斷하였기 때문에 韓國側 提議를 受諾하려고 하지 않았다.

제네바 會議는 아무런 成果도 걸우지 못하고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美·蘇를 中心으로 하는 兩側의 當事國들이 互讓과 妥協으로 會議를 期必코 成功시키려고 하는 큰 熱意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3. 民族統一이 實現되지 못하는 理由

우리 民族의 自主獨立統一國家 建設이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理由에 對한 部分的說明은 이미 以上の 粗略한 敘述 即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 및 美·蘇共同委員會와 6·25 慘劇에 關한 部分에서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若干의 重複을 꺼림이 없이 이問題에 對한 簡單한 論述을 試圖하려고 한다.

亞細亞에서는 第一번저 近代化에 成功하는 同時에 재빨리 帝國主義의 길로 들어섰던 宿敵日本이 우리나라를 向해 侵略의 魔手를 뻗쳐오자 우리 民族은 奮然히 蹶起하여 勇敢한 抗日鬪爭을 開始하였었다. 우리 民族의 피어린 抗日解放鬪爭은 韓末의 義兵運動을 始發點으로 하여 日帝統治의 36年間

줄기차게 繼續되었다. 우리의 많은 愛國先聲과 獨立鬪士들은 海內와 海外에서 - 滿洲와 中國本土 露領과 美洲等等에서 - 風僕露宿 온갖 苦楚를 겪으면서 祖國의 獨立과 民族의 解放을 爲하여 勇敢한 鬪爭을 하였다. 우리民族의 이와같은 解放鬪爭은 世界 어느民族의 勇敢한 反植民主義的 解放鬪爭에도 決코 뒤지지 않는 가장 勇敢하고 끈질긴것도 훌륭한 것이었다.

우리民族의 抗日解放鬪爭이 이렇듯 勇敢하고 훌륭한 것이었음은 事實이지마는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우리들 自身의 主體的力量에 依하여 偉大한 8.15 解放을 戰取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反파씨즘戰爭이었던 第二次世界大戰에서 勝利를 걸은 民主主義聯合 諸國의 고마운 贈物로서 8.15 解放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와같이 우리가 8.15 解放을 우리自身의 主體的力量에 依하여 戰取하지 못하고 美·英·蘇를 中心으로 하는 國際民主陣營의 贈物로서 받아들였다는 事實이야말로 終戰以後 우리韓半島問題의 合理的解決을 크게 制約해온 主要原因中的 하나임이 틀림 없는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暴惡한 日本帝國主義勢力을 打到하는 面에서 좀더 積極的인 役割을 担当하고 遂行할 수가 있었다라면 우리民族의 惹思와 利益에 反하여 運命의 38線이 저렇게 그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며 設使 一旦은 그어졌다손 치더라도-時的인 軍事的分界線으로서 그어졌던 怨恨의 이線이 政治的境界線으로서 固定되어 버림을 우리는 決코 許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民族이 아직껏 自主獨立의 民主的統一國家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이를 大別하여 國際的 客觀的인 理由와 國內的・主體的인 理由로 나눌 수가 있다.

第二次世界大戰期間中 緊密히 維持되어 왔던 反파싸움 聯合諸國間의 同盟關係는 大戰이 終結하지마자 決裂을 보게되었으며 美・蘇兩國을 各各 中心으로 하는 東西兩大陣營 사이에는 所謂 『冷戰』이 싹트고 漸次로 激化하기 始作하였다. 東西關係가 이렇듯 惡化하게된 主要原因은 共產陣營의 總帥인 「요시프-스탈린」이 美・英・蘇間의 얄타協定을 無視 蹂躪하고 波蘭을 비롯한 蘇聯軍 占領下의 東歐에 對한 쏘베트化 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同時에 그의 隣接國인 土耳其와 그當時 內亂의 渦中에 있던 希臘에 對해서 強한 政治的 軍事的壓力을 加하고 있었는바 美・英等 西方諸國의 立場에서는 스탈린의 이렇듯 傍若無人한 膨脹主義政策을 容認할 수가 없었다는 點에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中國 大陸에서는 國共合作에 依한 中國의 民主化를 目的하였던 트루먼 美國大統領의 對中國政策이 失敗로 끝나고 國民黨軍에 對한 人民解放軍의 決定的 勝利에 依하여 中國共產黨은 廣대한 全 中國大陸을 手中에 掌握하여 가고 있었다. 트루먼大統領의 焦燥와 失望은 크지 않을 수 없었으며 東西間의 冷戰은 더욱 더욱 激化할 수 밖에 없었다.

이윽고 1947年 봄에는 所謂 「트루먼主義」가 宣布되고 同年 여름에는 西歐諸國의 戰後復興事業을 돕기 爲한 大規模의 援助計劃 卽 「마셜計劃」이 公表된다.

그리고 獨裁家 스탈린은 西方에서 失墮된 그 自身の 威信을 東方에서 挽回하여 볼 目的으로 그의 耽耽한 눈초리를 亞細亞의 東쪽 韓半島로 돌리게 되어 3年後인 1950年 여름에는 그는 無謀하게도 不法적인 韓國戰爭을 挑發하게 된다.

이와 같이 東西間의 冷戰이 점점더 熾烈해 진 끝에 마침내는 局部的 熱戰으로까지 化해 버리는 그러한 國際的 狀況下에서 韓半島問題 卽 韓國統一問題가 美·蘇 兩大國間의 折衝과 互讓에 依해서 合理的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到底히 期待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의 實質的 廢棄와 美·蘇共委의 破綻 罪惡的인 韓國戰爭의 挑發 제네바 政治會議의 決裂等 一聯의 歷史的 諸事實은 東西間의 이렇듯 熾烈한 冷戰과의 關聯에 있어서만 올바르게 理解될 수가 있을 것이다.



스탈린의 死去以後 特別 所謂「큐바危機」를 頂点으로하여 그 以後 東西間의 冷戰이 漸次로 풀려가고 있음은 事實이다. 더우기 數年 前부터는 닉슨美國大統領의 北京訪問과 美國-中共間의 和解 日本-中共間의 國交正常化 등을 契機로하여 韓半島를 에워싼 周邊情勢가 크게 變하고 있음은 勿論이며 그렇기때문에야 말로 南韓과 北韓間의 對話가 開始되었고 또 迂餘曲折을 거치면서도 이 南北對話는 繼續되려하고 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뒤에 다시 論及할 機會가 있으려니와 여기서는 다만 東西間의 熾烈한 冷戰이라고 하는 國際政治的要因이 韓半島問題의 올바른 解決을 크게 沮害하여왔다는 事實을 指摘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民族統一이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理由를 大體로 國際的 客觀的인 面에서 이야기 하였다고 할수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理由를 國內的主体的인 面에서 說明하지 않으면 안될 順序이지만은 事實인즉 우리는 위에서 即 모스크바三相會議決定 및 美·소共委와 韓國戰爭에 關한 部分에서 이미 이점에 論及한바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若干의 重複을 무릅쓰면서 簡單한 論述을 試圖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東西間의 冷戰과 其他의 國際的要因이 韓半島의 分斷과 分斷의 長久化에 큰 影響을 미치었음은 事實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에 對한 責任의 全部를 國際的 外部的 要因에만 돌릴수는 없으며 또 돌려서는 안될 일이다. 八·一五解放當時에 있어서의 우리 國內의 社會的 및 政治的 混亂 民族의 分裂과 左右兩翼의 激甚한 對立,

우리 指導者들의 國際政治에 對한 經驗 및 識見의 不足과 主要政治 問題들에 對한 判斷錯誤 權力慾으로 불타는 一部政治 指導者들의 感情 的 煽動과 民衆誤導 等等과 같은 國內的 主体的 諸要因이 上述한 國際的 外部的 諸要因과 結合하여 三八度線의 長久化 民族相殘의 六·二五慘劇 民族統一의 實現遲延 等等과 같은 不幸스러운 諸結果 를 招來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 아니면 아니된다.

이를 換言하건대 만일에 八·一五解放當時 우리 民族이 그렇듯 分裂하지 않고 적어도 統一問題에 關한 限 左右兩翼과 中間이 一致 團結할 수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아마도 國際的 外部的 諸要因의 否定的 作用을 排除하면서 우리의 祖國統一=民族再結合問題를 妥當 하게 解決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리해서 우리는 우리의 祖國統一이 實現되지 못한 第一 큰 原因은 우리의 民族的分裂에 있었다고 斷定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에 對한 第一次的 責任은 極烈한 左 右翼의 兩勢力에게 지워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우리 的 民族全體가 우리들 個個人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指導者들이 다같이 이에 對한 責任을 痛感하고 悔悟하고 反省하고 祖國과 民族 을 爲한 새로운 決意와 覺悟를 一層더 굳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다.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움과 함께 羨望의 念을 가지고 想起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름 아닌 塊地利의 統一이다. 塊地利는 第二 次世界大戰이 끝날 무렵 美, 英, 仏 等 西方諸國의 軍隊와 蘇聯

북은 軍隊에게 分割占領을 當하는 가장 어려운 處地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奧地利國民과 그 指導者들은 훌륭한 民族의 團結을 誇示하면서 祖國의 統一獨立을 爲하여 꾸준한 熱誠的 努力을 기울였다. 그들은 萬難을 무릅쓰고 百折不屈의 努力을 多年間 기울인 끝에 마침내는 가장 어려운 交渉 相對인 蘇聯을 說得하는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奧地利가 聯合軍에게 占領된 直後인 一九四五年 四月二十七日 民主的社會主義者인 「칼·레너」의 主導下에 天主教系인 國民黨 社會黨 및 共產黨 等 三大政治勢力이 參與한 臨時政府가 樹立되고 奧地利民主共和國의 再建이 一旦 宣布되었다. 그러나 이윽고 四個聯合國間에 마련된 所謂 第一次統制條約이 締結되고 이에 依하여 奧地利的 四個國分割占領과 그 頂上機關인 統制委員會의 構成이 決定되었다.

統制委員會의 存在에도 不拘하고 「레너」의 臨時政府는 單一的行政權 밑으로 奧地利全域을 統合시키는데 크게 容與하였다. 事實上 「레너」의 臨時政府는 蘇聯軍 占領地域內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蘇聯側으로부터의 強한 統制를 免하기 어려운 處地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豊富한 政治的 經歷과 훌륭한 經綸을 갖는 「레너」는 國民黨指導者 等과의 接觸을 通하여 四個國占領地域을 橫斷하는 政治指導者間의 意思疎通과 交信直結에 注力하였다. 처음에 蘇聯占領地域에 局限되었던 「레너」政府의 行政權은 西方側의 容認下에 全國的으로 擴大되었으며 그 構成에 있어서도 모든 核心的 政治勢力을

幅넓게 包摂할수가 있었다.

一九四五年 十一月 總選의 結果로 国民党(85席) 社会党(76席) 共産党(4席)等 三党聯立의 举国内閣이 成立하였는바 首相에는 国民党의 「휘글」 副首相에는 社会党的 「쉐르호」가 指名되었다. 이리해서 出現한 奧地利政府는 그들의 祖国의 統一獨立을 爲하여 온갖 努力을 기울였던 것이다.

第二共和国初期에 臨政의 首班을 거쳐 大統領에 오른 見識 높은 老政治家 「레너」는 一九四七年一月 奧地利의 統一과 獨立을 保障받기 爲하여는 瑞西式 中立化가 바람직하다는 意見을 發表하였으며 同年 十月 奧地利 社会党은 새로운 政綱을 發表하면서 公公式의 中立化方式을 支持하였다. 그리고 国民党도 中立化가 不可避하리라는 意見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霧困氣는 漸次로 成熟하여 갔으며 一九五一, 五二年頃에 이르러서는 社会党出身의 第二代大統領 「콰르너」는 數次에 걸쳐 中立國 瑞西의 슬기를 본받자는 主張을 하게 까지 되었다. 그리고 一九五二年 四月 外相 「그루버」는 『奧地利政府의 立場은 國際法的인 中立위에 서 있다』고 公言하였다. 이무렵에 奧地利 指導者들은 同國이 東西紛争속에 말려들 意思가 전혀 없음을 밝힘으로서 蘇聯을 撫摩하고 그를 다시 中斷되었던 國家條約協商으로 誘導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一九五三年初에 새로이 成立한 「라브」首相 政府는 徐徐히 움직이기 始作한 國際解冰霧困氣를 利用하면서 對蘇接近을 爲한 積

極的努力을 開始하였다. 이와같은 埃地利政府의 眞摯한 努力이 効果를 나타내어 一九五五年 二月八日 「몰로토프」는 소비에트最高會議에서 行한 그의 演說에서 『埃地利問題는 獨立問題와는 分離될 수 있음』을 처음 밝히고 다만 그 條件으로서 埃地利가 餘他國家와 同盟을 맺지 않는다는 充分한 保障이 있어야한다는 主張을 하였을 뿐이었다. 勿失好機라고 判斷을 한 埃地利政府는 一九五五年 三月十四日 駐蘇大使 「비쇼프」를 通하여 「몰로토프」에게 埃地利政府의 請願形式으로된 覺書를 傳達하였다. 그리고 이에대한 蘇聯政府의 回答은 好意的인 것이었다.

이리해서 狀況이 急進展을 하게되자 埃地利政府는 首相「라브」를 團長으로하는 政府代表團을 「모스크바」에 派遣하였는바 同代表團은 蘇聯首腦들과의 一聯의 會談을 거친後 이른바 「모스크바」覺書에 署名하였다.

蘇聯이 提出하고 埃地利가 確認함으로써 合意確定된 覺書의 가장 主要한 骨子는 『埃地利政府는……國際的義務로서 瑞西式 永世中立을 扞하겠다는 宣言을 發表』하고 『自國領土를 侵害하지 않겠다는 四大國의 保障을 歡迎』하며 『이러한 四大國의 保障을 받기 爲하여 努力』하겠다는것 등이었다.

蘇聯의 提議를 따라서 一九五五年 五月二日부터 「윈」에서 「埃地利代表의 參加裡에 美·英·蘇·仏 等 四個國外相會議가 開催되었으며 五月十五日에는 埃地利首相과 占領四個國外相間에 自由·獨立·民主의 埃地利國再建에 關한 國家條約이 署名됨에 이르렀다. 이

條約의 主要骨子는 同盟國과 聯合國은 『奧地利가 主權的独立的 및 民主的國家로서 再建되었음을 宣言한다』(第一條)는것 獨逸로 하여금 奧地利의 主權과 獨立을 承認케하고 同國에對한 領土的政治的 要求를 斷念케한다(第三條)는것 『奧地利와 獨逸間의 어떠한 政治的乃至 經濟的結合도 이를 禁止한다』(第四條)는 것 等이다.

一九五五年 六月一日 奧地利國會는 全員 會議에서 全員一致로 奧地利의 永世中立을 宣布하였다. 그後 一九五五年 十月二十五日 奧地利를 分割占領했던 四個國軍의 撤収와 同時에 同國의 永世中立化에 關한 規定이 國會를 通過하여 憲法條項化되었다.

奧地利의 統一과 中立을 爭取하기爲한 努力의 긴 行政은 實로 艱難辛勞의 連続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一九四五年以來 十年이라는 긴 歲月과 三百回를 넘는 各種의 會議을 거쳐 冷戰時代에 이룩된 反冷戰的인 가장 훌륭한 國際的 政治的 成果가 바로 奧地利中立化統一의 成就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奧地利가 中立化統一을 훌륭히 成就할 수 있었던것은 첫째로 完全한 政治的 獨立과 統一을 爭取하려고하는 奧地人들의 統一된 全國民의 意志의 德沢 이 를 換言하면 奧地利國民이 大同團結하여 이와같은 民族的大課業을 成就하기 爲한 積極的 努力을 끈기있게 遂行한 德沢이며 둘째로 奧地利國民은 가장 重大한 歷史的時期에 있어서 「칼·베너」를 비롯하여 「피르너」 「쉐르흐」 「휘글」 「라브」 等等과 같은 信念과 見識과 洞察力을 갖는 훌륭한 指導者들을 多幸하게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이와같이 훌륭한 奧地利의 指導者들은

不屈의 闘志와 끈기있는 努力으로서 輿地利問題의 解決을 爲한 機會를 積極적으로 創出하려고 努力하는 同時에 나타난 機會를 재빠르게 捕捉活用할만한 洞察力과 銳敏性을 갖추고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輿地利의 境遇에는 賢明한 指導者들 밑에서 全國民이 하나로 뭉쳐 奮闘努力함으로써 마침내 祖國의 再統一을 達成할수가 있었음에 反하여 우리들의 境遇에는 指導者들의 經驗不足 및 判斷未熟과 極甚한 民族分裂로 말미암아서 祖國統一의 實現乃至는 實現促進을 爲한 機會들을 몇차례나 놓쳐 버렸다는 遺憾스러운 事實을 우리는 슬픔을 삼키면서 冷徹하게 自俄批判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우리는 온갖 知慧를 動員하고 온갖 力量을 集結傾注하여 南北으로 分斷된 우리의 祖國과 民族의 再統一을 期必코 實現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祖國統一을 期必코 達成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는 무엇인가.

#### 4. 祖國統一의 必然性

첫째 우리는 半萬年의 歷史를 通하여 單一民族이었고 같은 文化 같은 傳統 같은 言語를 가지고 살아있으며 우리 民族은 統一新羅以後 單一民族 單一國家로서 찬란한 文化를 꽃피우면서 成長發展하여 있다. 우리 民族이 半萬年의 歷史와 文化와 傳統을 持續發展시키는 同時에 人類文化發展에 크게 寄與할 수 있기 爲하여는

人爲的으로 分斷된 우리의 祖國과 民族은 반드시 再統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둘째 人爲的인 國土分斷으로 말미암아 家族과 親戚이 南北으로 離散하여 서로 生死와 安否까지도 알수가 없게끔 되었는바 이는 하나의 큰 民族的不幸이 아닐 수 없다. 數百萬 離散家族들의 이와같은 不幸과 苦痛을 除去 止揚하기 爲해서도 우리 民族의 早速한 再統一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로 부터 北韓에는 地下資源이 많고 南韓에는 農水産資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일에 南北統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南北韓의 特殊한 立地條件들을 살려 均衡的인 經濟發展을 크게 促進하고 이의 힘으로써 國民大衆의 生活과 文化를 急進的으로 向上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祖國의 再統一이 期必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큰 理由들中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은 極東의 平和 및 安全 나아가서는 世界의 平和 및 安全과 連結된다. 그런데 韓半島의 分斷이 持續되는限 紛爭의 불씨 卽 平和와 安全에 對한 破壞要因은 除去될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祖國統一 우리의 國土統一은 極東의 平和와 安全 나아가서는 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爲하여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의 民族統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民主的 統一韓國이 建立될때 우리는 歷史的으로 大陸勢力과 海洋勢力의 衝突地域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여온 우리 韓半島를 列強間의 緩衝地帶=平和的 中立地域으로 轉換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리함으



로서 우리는 極東과 世界の 平和에 容與하고 人類의 共存과 共榮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國土와 民族이 南北으로 兩斷된 以後 南北韓間의 異質化現象이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思考方式 價值觀 乃至 倫理觀等 精神生活面에 있어서 분아니라 言語習慣 生活態度 行動樣式 等等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같은 異質化가 그대로 繼續된다면 窮極에 가서는 우리 民族의 同質化가 大端히 어려워질 念慮가 없지 않다. 南北間의 이와같은 異質化를 沮止하고 民族의 同質化를 促進達成하여 우리 民族의 統一的인 進歩的文化를 開花發展시키기 爲하여는 우리의 祖國統一은 早速히 이룩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여섯째 우리의 祖國統一이 이루어지기 爲하여는 北韓의 極端化한 스탈린의 共產主義는 東歐諸國에 있어서와 같이 修正主義=民族的 共產主義의 方向으로 어느 程度以上の 性格變化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所謂 『唯一體制』의 北韓 共產主義가 民族化=自由化의 方向에서 크게 『修正』되고 北韓의 우리 同胞들이 人間的自由와 民主的權利를 누릴 수 있도록 되기 爲해서는 우리의 民族統一이 이루어져 北韓의 共產勢力이 統一된 民族國家의 태두리 안에서 우리들과 『共存』共榮을 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半萬年의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는 우리 韓民族은 이와같이 긴 歷史의 路程에서 많은 辛苦와 艱難을 겪었으며 여러 고비의 奇蹟한 運命을 體驗하였다. 우리 民族은 여러 차례에 걸친

外侵을 당하였는바 例컨대 高麗時代에 있어서의 契丹 女真 蒙古 등의 侵入 李朝時代에 있어서의 淸의 侵入(丙子胡亂) 倭의 侵入(壬辰倭亂) 等等이 卽 그것이다. 이러한 外侵을 당할때 마다 우리 民族은 勇氣와 슬기와 團結로서 이들 外敵을 擊退할수가 있었지만은 그때 그때 마다 우리의 民族大衆은 人的 物的인 큰 損失과 傷處를 입지 않을 수 없었음이 事實이다.

二十世紀에 들어서서 우리 民族은 三十六年間이나 日帝의 植民主義의 支配下에서 酷甚한 壓迫과 擄取를 당하였다. 그러다가 第二次世界大戰에서의 民主主義聯合諸國의 勝利의 德沢으로 우리 民族은 暴惡한 日帝의 기반에서 解放되었다.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希望을 안고서 八·一五解放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美·蘇 兩大國에 依하여 →우리가 아지도 못하는 사이에 - 우리의 國土와 民族을 兩斷하는 運命의 三八線이 그어져 있었다. 이리해서 南北으로 兩斷된 우리 民族은 各各 相反하는 異質의 體制下에서 生을 營為하게 되었으며 北韓의 우리 同胞들은 스탈린의 共產獨裁의 嚴酷함과 無慈悲함을 몸소 體驗할 수가 있었다. 이윽고 北方 共產勢力에 依하여 同族相殘의 六·二五가 不法的으로 挑發되었다. 이것은 우리 民族史上의 가장 큰 試練이었지만은 우리는 美國을 비롯한 友邦諸國의 積極的協助下에 온갖 힘을 기울여서 이 큰 試練을 克服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全民族은 六·二五의 慘劇을 通하여 戰爭의 悲慘함과 同族相殘의 쓰라림과 民族運命의 奇苦함과 아울러서 스탈린의 共產主義의 反民族的 反人道的의 性

格을 뼈저리게 體驗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이 우리 民族은 우리들 自身の 深刻하고 뼈저린 經驗을 통해서 北方의 스탈린의 共產主義의 否定的側面과 함께 그 積極的側面까지를 理解하고 把握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併行해서 우리 民族은 解放以後 南韓에서의 李承晚式 『獨裁政治』를 經驗하였고 四·一九와 이에 뒤이어서 나타났던 張勉政權의 『民主政治』를 經驗하였으며 五·一六軍事革命과 그 以後에 있어서의 軍部勢力에 依한 『強權政治』를 經驗하였다.

이와같이 우리 民族은 悠久한 歷史의 進行過程에서 特히 日帝統治期間과 解放後 四半世紀동안에 -世界 어느 民族에게도 뒤지지 않을 程度로 - 深刻하고 또 多樣한 여러가지 經驗 乃至 體驗을 하였으며 이와같은 經驗 乃至 體驗을 통하여 많은 知識과 敎訓을 體得할수가 있었다. 그리고 深刻한 體驗을 통하여 얻어지는 知識과 敎訓은 가장 貴重한 것으로서 讀書나 見聞을 통해서 얻어지는 種類의 것과는 比較가 되지 않는다. 뼈저린 體驗을 통하여 얻어진 우리 民族의 이렇듯 高貴한 知識과 敎訓과 信念은 前進的인 民主的統一國家의 建設이라는 우리 民族의 歷史的 大課業의 實現을 爲하여 훌륭히 活用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民主的統一國家의 建設을 爲한 妥當的인 훌륭한 理念과 體制構想은 우리 民族의 至極히 값비싼 體驗과 이로부터 얻어진 敎訓과 信念의 基礎위에서 産出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民族이 그렇듯 懷絶深刻한 體驗을 통하여 到達한 政治的思想的

信이란 어떠한 것이겠는가. 一言而蔽之하면 그것은 後進國的인 『自由資本主義』乃至 『自由民主主義』와 暴力的獨裁的인 스탈린의 共產主義의 短點과 欠點을 다같이 克服 止揚한 次元 높은 前進的인 民主的統一國家에 對한 理念과 體制構想을 意味할 수 밖에 없다. 이를 要컨대 우리 民族의 이렇듯 값비싼 體驗과 敎訓과 信念을 올바르게 살림으로써 各體의 自由와 幸福을 增進하고 나아가서 人類의 共存 共榮과 福祉向上에 이바지할 수 있기 爲해서도 우리의 祖國統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위에서 列擧한바와 같은 主要한 여러가지 理由에 依해서 우리는 南北으로 兩斷된 우리의 國土와 民族이 - 適當한 段階를 거치되 可及的 早速히 - 再統一되어야 한다는것을 強力히 主張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主張은 當爲性(출연)의 觀點에서 至極히 當然하다고 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實踐的인 觀點에서 이 問題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질 必要가 있을 터이기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設門 卽 『그러면 우리의 祖國統一=民族統一은 現實的으로 可能할것이나?』라는 設問을 내어놓고 이에對한 理論的 實踐的인 解答을 試圖하려고 하는 바이다.

## 二. 独逸의 統一政策

한때 「나일江辺의 奇蹟」이라고 일컬어진 西獨의 經濟復興을 模倣하여 「漢江辺의 奇蹟」을 이룩함으로써 南韓이 北韓을 吸收統合할 수 있는 그러한 「磁力的存在」로 되어야 한다고 主張된 일이 있었다. 「라인」江辺에서 일어날수 있는 奇蹟과 漢江辺에서 일으키려고 構想하는 奇蹟사이에는 结构与上 本質的差異가 있었기 때문에 兩者를 對比하는 것 自体가 無理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一部 政客들의 한낱 口號에 그치고 말았었거니와 이지음은 또 東西獨基本條約의 成立을 契機로 오늘의 東·西獨 關係를 「모델」로 하여 우리南北間의 和解 對活 乃至는 統一問題를 다루고저하는 傾向이 없지 아니함을 우리는 쉽게 着取할 수가 있다.

오늘의 東西獨關係 그리고 이른바 東西獨 基本條約에서 規定된 바 그 發展方向은 果然 우리에게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以下에서 몇가지 問題點을 摘出解明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南北分斷과 独逸의 東·西分斷이 國際的 外部努力에 依하여 造作된 것이며 또 南과 北이 그리고 西와 東이 民主主義와 共產主義라는 對立的 「이데올로기」를 各各 代表하고 있기 때문에 民族再統一의 實現이 錯雜하고도 어려운 問題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点에서는 韓國과 独逸의 境遇가 서로 類似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獨逸을 圍繞한 國際的情形은 獨逸의 再統一을 許容하지 않으려는 方向에서 거의 굳어져 버렸다고 말할수가 있다.

干先 蘇聯은 露骨的으로 獨逸의 統一을 反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東獨인 「獨逸 民主共和國」이라는 分斷國家를 育成하여 그를 앞장 세움으로써 獨逸再統一反對政策을 遂行하여 왔다. 그리고 前後 數次에 걸쳐 獨逸로부터 侵攻을 받아 莫大한 損害와 戰禍를 입은 仏蘭西와 英國이 또한 內心으로는 獨逸의 再統一을 贊成하고 있지 않는다.

獨逸再統一問題에 對한 列強의 態度가 이러한 것임을 獨逸人들 自身이 熟知하고 있기 때문에야 말로 「브란트」의 所謂 「오스트 폴리틱」(東方政策)은 나오게 되었다. 가까운 將來에는 到底히 統一實現이 不可能하리라 함을 알고있는 「브란트」는 먼將來를 내 어다 보면서 그의 遠大한 「東方政策」을 構想하였다. 그의 생각 하는 바에 依하면 가까운 將來에는 統一實現을 期待할 수 없는 以上 干先 東西間의 緊張緩和와 交流擴大에 힘씀으로서 東西關係를 더욱 改善하고 相互接近을 꾀하는 同時에 東西間의 懸案들인 相互 減軍問題 軍縮問題 核武器 制限問題等의 解決을 爲하여 努力할 必要가 있으며 뒤에 가서 機가 무르익어 兩大軍事同盟 休 即 北太西洋 同盟機構와 「와르샤바」同盟機構가 解体되고 歐羅巴集團安保機構가 樹立되기라도 할 境遇에는 이 集團機構의 테두리 안에서 獨逸統一 問題가 解決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境遇에는 東西間의 緊張이 完全히 풀이 되고 東西間의 經濟的 文化的 紐帶가 크게

強化된 國際的狀況下에서 獨逸의 非武裝中立化를 嚴重한 條件으로 하여 獨逸統一이 이루어질 可能性도 없지는 않지만 如何든 東亞 兩獨을 統合하여 하나의 統一의 民族國家를 建立한다는 일은 當面한 現實問題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와같은 東方政策을 果敢하게 實踐에 옮기게 된 「브란트」는 마침내 東獨과의 사이에 所謂 東·西獨 基本條約을 締結함에 이르렀는데 이 條約의 要點은 東西兩獨은 國家를 하나의 『獨立國家』로 認定하면서 相互間에 國家對 國家의 外交關係를 樹立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條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처음에 西獨側은 『條約』이란 用語를 쓰지말고 『協定』으로 할것을 主張하였고 東獨側에서는 서로 交換할 外交使節의 職名을 『代表』라고 부르기 보다는 『大使』라고 부를 것을 主張하다가 옥션각션끝에 서로 讓步하여 『條約』과 『代表』로 落着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와같은 옥션각션이 일어났던 理由는 要컨대 브란트의 西獨은 獨逸再統一에 對한 相當 未練을 갖고 있음에 反하여 東獨은 西獨과 分離된 完全한 獨立國家로서의 地位와 資格을 承認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如何든 間에 이 『基本條約』에 依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라는 二個의 國家가 存在한다는 事實이 正式로 認定되었다. 이윽고 二個의 이들 獨立國家는 유·엔에의 同時加入을 敢行하기 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事態發展은 獨逸問題에 對한 蘇聯政策의 勝利 共產陣營의 勝利라고 評價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해서 지금 獨逸人들은 『一民族二國家』란 現實을 是認하면서 民族再統一을 거의 斷念하고 다만 『民族的單一性』(나찌오날레。아인하이트) 保存이라는 主張에서 어느程度의 名分과 自慰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西獨政府内の 東。西獨關係機構가 처음에는 避難民省으로 불리었고 統一問題가 한창 強調될때에 全獨省으로 고쳐졌다가 最近에는 그것이 다시 兩獨關係省으로 政稱되었다고 하는바 이 簡單한 事實은 統一問題에 對한 獨逸人들의 締念的立場을 端的으로 表示한다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民族的單一性』의 保存이라는 課題도 有名無實하게 되어 結局 西獨側은 失敗의 쓰라림만을 맛보게 될 可能性이 짙다. 東獨側에서는 民族的單一性의 保存보다도 『東獨的獨自性』의 提高를 爲하여 數年前부터 여러分野에 걸친 各種의 政策的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한便 西獨은 오늘날 人口六千萬을 推하는 世界一流의 工業先進國이 되었으며 그經濟的實力은 美。蘇에 다음가는 位置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西獨은 同一民族의 한 部分인 東獨이 떠러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自身の 國家的存立上 거의 痛痒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基本條約』의 成立으로 말미암아 東西獨間의 人的往來가 훨씬더 便利해졌을 뿐아니라 兩獨間의 物資交流는 크게 促進擴大되도록 되었다.

元來 東西獨間의 資源賦存 乃至 經濟開發狀況은 우리의 南北韓間의事情과는 正反對的이었다. 卽 東獨은 農業地帶이며 工業化가 落後한 地域이었다. 그럼에도 오늘의 東獨은 世界工業化 第八位國이



되었으며 共產國에서의 對阿洲後進國 經濟援助에서는 蘇聯과 中共에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의  
誇張된 宣傳이 아니라 다음아닌 美國의 新聞雜誌가 伝해주는 消  
息이다. 그리고 또 美國新聞의 報道들은 東獨에서 西獨으로 넘어  
오는 脱出 事件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음은 事實이지만은 生  
活이 조달려서 越境하는 境遇는 거의 없고 一旦 西獨으로 넘어  
왔던 東獨人이 다시 越東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것은 東獨의 一般의生活水準이 그만큼 向上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는 추이를 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가 獨逸事情에 對한 冗長한 說明을 試圖하는 理  
由은 우리의 民族統一問題와 獨逸統一問題의 諸要件을 相互對比함으  
로서, 오늘의 東西獨關係展開가 우리의 統一問題解決을 爲한 하나의  
『모델』로 될수 있을것이나 하는 點에 對한 우리들 自身の 올바  
른 判斷을 내릴수 있기 爲해서 이다.

獨逸의 統一問題는 獨逸帝國(普及戰爭의 結果로 一八七一年에  
「프로이센」 宰相 「비스마르크」에 依하여 樹立되었던것)이라는  
近代的民族國家가 二次에 걸친 帝國主義的戰爭의 結果로 깨어졌던  
것을 다시 原狀復舊하려는 國家再統一 再建運動임에 反하여 우리의  
統一問題는 金玉均의 開化黨運動 乃至는 徐載弼의 獨立協會運動 以  
來 韓半島를 圍繞한 列強의 角逐속에서 그들의 侵攻과 牽制로 말  
미암아 阻害當하고 達成 不可能하였던 近代的 民族國家를 樹立하기  
爲한 民族再統一運動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民族統一 運動은,

韓末의 開化獨立運動과 三·一運動의 傳統 및 精神을 이어 받은 民族主義的 反植民主義的인 本質과 性格을 띠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統一問題와 獨逸統一問題間의 本質的差異點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地政學的인 諸條件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獨逸사이에는 顯著한 差異點이 存在한다. 獨逸의 潛在努力은 大端히 強大하기 때문에 同國의 再統一이 實現되어 對外侵略을 다시 되풀이 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周圍의 列強은 獨逸의 再統一을 抑制하고 遲延시키려고 努力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서 蘇聯은 여태까지 二十個師團이라는 큰 兵力을 東獨에 繼續駐屯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으로서 東獨政權을 完全히 掌握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英·仏·美等 諸國도 獨逸統一問題에 對하여는 積極的肯定的이 아니고 消極的 否定的이라함이 또한 事實인 것이다. 이와는 反對로 우리의 四大隣國 卽 美·蘇·中共·日本의 힘은 너무도 圧倒的으로 크며 우리들의 힘은 그들에 比하여 너무도 微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四強이 우리의 民族統一을 反對해야 할 아무런 積極的 理由도 없지마는 그들이 어느程度 念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韓民族의 統一國家가 或은 自己나라便이 아닌 다른 나라便으로 기울어져 自己들의 國家的利益 (『내슈널·인터레스트』)을 損傷하지나 않을까 하는 點일 것이다.

우리의 民族統一을 完全達成하기 爲하여는 우리는 이들 四強의 이와같은 危慎心을 解消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危慎心을 解消시킬수 있는 方法을 오직 하나 卽 우리의 統一祖國은 絶對로 公正한 中立的位置에 서서 오로지 世界 平和와 人類福祉를 爲해서만 意志心 努力하려고 한다는 우리 民族의 意志와 決心을 明白히 表示하고 또 이를 國際的으로 公約하는 길이 있을 뿐일 것이다.

큰 潛在의 力量을 갖고있는 獨逸은 東西獨이 分立하여 『一民族二國家』가 되더라도 各各 經濟的으로 充分히 存立하여 갈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우리의 境遇는 이와는 判異하다. 人力의 需給 資源의 配置 產業의 分布 等等과 같은 國民經濟的 諸要因을 考慮할때 우리의 境遇 國土統合과 民族統一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튼튼한 自立經濟의 基礎위에 確固히 서는 自主獨立의 民族國家를 建設하기가 不可能할 것이다.

獨逸은 일찌기 全民族을 一丸으로한 國家統一을 成就해 본 일이 없다. 奧地利는 只속도 獨逸과는 別個의 獨立國이고 瑞西聯邦의 約半分은 獨逸系 人口이며 少數이지만 「주테덴」獨逸이란것이 또 「체코」領內에 있는바 戰爭狂「히틀러」가 第二次大戰의 불을 지르기 始作한것은 바로 여기서 잇던 것이다.

缺血宰相「비스마르크」에 依하여 「프로이센」을 中心으로 하는 獨逸民族의 大體的統合이 實現된것은 一八七一年이었는데 이것은 只속으로부터 겨우 百餘年前의 일이었다. 우리民族의 境遇 西紀 六六八年 金庾信에 依한 三國統一로 統一新羅가 出現한 以後 우리는 하나의 單一種族=民族으로서 連綿히 一千三百餘年을 이疆土에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統一國家로서의 歷史의 長短이란 點에서 獨逸은 到底히 우리나라와는 比較가 될수 없는 것이다.

重復을 꺼림이 없이 우리는 『獨逸統一의 實現이 至難하거나 또는 거의 不可能하리라고 보아지는 理由는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또한번 내어 놓을수가 있다. 이에 對한 大體的인 應答은 散漫한 上記論述을 通하여 이미 주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로되 이를 簡單하게 要約하여 본다면 그理由는 첫째로 獨逸統一의 實現에 對한 獨逸人들 自身の 熱意가 大端히 보이지 않는다는 點에 있다. 東獨의 共產支配集團이 獨逸統一을 內心으로 反對하고 있을 뿐이 아니라 西獨內部에 있어서도 基督民主黨을 中心으로 하는 舊敎勢力은 大體的으로 統一問題에 對하여 그리 熱誠的이 아니며 이들 保守努力은 도리어 같은 舊敎國家들의 集結體라고도 할수 있을 西歐聯合 乃至는 西歐 合衆國樹立 問題에 對하여 보다 큰 憂愁와 愛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고도 推察된다. 만일 東西獨統合이 이루어질 境遇에는 政治的으로 社會民主黨은 큰 利益을 보리로되 反對로 基督敎民主黨은 相對的으로 큰 損害를 보지않을 수 없으리라고 推測된다. 왜냐하면 舊敎가 優勢한 西獨자는 反對로 東獨은 新敎가 優勢한 地域이며 舊敎徒들이 大體로 基民黨으로 支持하고 있음에 反하여 新敎徒들은 大體로 社民黨을 支持하고 있기 때문이다. 獨逸統一問題에 對하여 基民黨이 社民黨보다도 一層 낮은 熱誠度를 보이는 一半의 理由는 바로 여기에 있으리라고도 보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獨逸統一問題의 解決이 至難하거나 또는 거의 不可能하리라고 보아서는 理由 乃至 原因은 國內政治的인 面에 있다기 보다는 주로 國際政的인 面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 獨逸을 圍繞한 列強이 獨逸의 再統一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箇中에도 아직껏 東獨에 큰 兵力을 駐屯시키고 있는 超強國 蘇聯이 이를 絶對로 反對하고 있다는 事實이야말로 獨逸의 再統一을 거의 不可能하게 하는 主要理由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먼 未來에 걸쳐서 우리는 獨逸統一의 實現을 爲한 두個의 可能性을 생각할 수가 없지 않다. 即 첫째 먼後日에 東西間의 緊張이 完全히 풀리고 西歐集團安保體制가 確立될 境遇 이 安保體制의 테두리 안에서 獨逸統一이 實現될 수 있는 境遇와 둘째 亦是 먼 後日에 國際的緊張이 풀리고 平和와 安全이 保障된다는 前提下에 統一獨逸의 非武裝中立化를 條件으로 하여 獨逸의 再統一이 許與될 수 있는 境遇等 두個의 可能性을 우리는 豫見할 수가 있을 것이다.

獨逸의 境遇와 韓國의 境遇를 對比類推하고 그 類似性을 지나치게 強調하면서 獨逸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民族統一實現은 至難하거나 거의 不可能하리라는 것을 主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以上の 우리들의 雜然한 論述에 비추어 볼지라도 一部 論客들의 이와같은 主張이 論拠落弱한 早急한 遽斷이며 不當하고 無責任한 主張이라함을 理解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統一問題와의 關聯에서 韓獨 兩國의 國內的條件을 比較해 본다면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獨逸國民은 熱誠的인 部分과 非熱誠

的인 部分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것으로 보아짐에 反하여 우리의 境遇는 北韓의 一部 少数 共產支配集團을 暫間 論外로한다면 南北韓을 통틀어 絶對多數의 民族大衆이 우리의 祖國統一을 熱望 渴求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韓獨兩國의 國內的 諸條件의 類似性을 理由로 해서 獨逸統一과 韓國統一이 多같이 至難하거나 거의 不可能하리라는 主張을 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 許容될수 없는 일이나니면 아니된다. 果然 그렇다고 하면 一部論者들의 이와같은 悲觀論的見解는 結局 韓獨兩國을 圍繞한 國際的狀況이 아주 類似하다고 하는 假定的 前提하에 獨逸과 韓國의 統一成就課業이 多같이 國際政治面으로 부터의 大制約을 當하고 있다고 推想하고 또 이를 現實的 事實로서 主張하려함이 틀림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獨逸이 處해 있는 地政學的位置와 韓國이 處해 있는 그것과의 사이에는 이를 換言하면 獨逸을 圍繞한 國際的情形과 韓國을 圍繞한 그것과의 사이에는 本質的인 大 差異가 存在한다. 獨逸의 境遇 그의 統一實現이 至難하거나 거의 不可能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가 主로 國際政治的인 것이며 獨逸統一問題가 國際政治的側面으로부터 決定的制約을 받고 있다는것은 위에서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그리고 우리 韓半島의 境遇는 이점에 있어 獨逸의 境遇와는 아주 判異하다는 事實을 우리는 明確히 認識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 三. 우리의 民族統一成就를 爲한 戰略

이미 所定의 紙面과 時間이 많이 超過하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以下所說은 一種의 朱馬看山의인 極히 粗略한 것으로 될수밖에 없을 듯 하다.

知彼가 必要하다.

여기서 彼라고 함은 좁게는 北韓의 金日成支配集團을 가리키는 것이며 넓게는 北方共産勢力 全体를 가리킨다. 勿論 共産主義 乃至 共産勢力은 短点들과 함께 長点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이 長点이고 무엇이 短点이나 하는 問題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差異가 있을수 있음은 勿論이다. 極端的인 境遇에는 或者는 者들의 短点만을 認定하려고 하기도 하고 反對로 或者는 者들의 長点만을 認定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冷徹한 批判的 眼目으로 볼때에는 이들 兩者가 다같이 過猶不及의인 誤謬를 犯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여기에는 하나의 어려운 問題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獨裁者 「스탈린」의 死去以後 蘇聯을 비롯한 共産世界가 「非스탈린化」의 方向에서 많이 變化하여 왔으며 따라서 「스탈린」主義의 本고장인 蘇聯과 東歐弱少 共産諸國에서는 「非스탈린化」 即 自由化=民主化가 相當히 進步하였고 또 하고 있음에 反하여 北韓이나 中共等 數個共産國에서는 낡은 스탈린主義的 立場이 大體로 固守되어왔을 뿐아니라 北韓과 같은 境遇에는

스탈린主義의 가장 큰 否定的側面의 하나인 「個人崇拜」가 몇배 더 強化되어 왔으며 이리해서 共產世界의 内部的 分化가 相当히 크게 일어나고 있음이 事實이기 때문에 共產主義 乃至는 共產世界의 長短점이란것을 우리가 一律적으로 批判論評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問題점이 卽 그것이다.

他人에 對한 批評을 할때에는 그의 長점을 이야기하고 그의 短점은 이야기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은 東洋的 禮儀에 屬하는 일일뿐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全人類的 倫理規範의 一部라고 까지 보아질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公的인 立場에서 批評을 할때와 私的인 立場에서 批評을 할때와의 사이에는 本質的인 差異가 있지 않을까 하는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如何든 우리가 他人에 對한 批評을 할때에는 그의 短点보다도 長점을 먼저 이야기 함이 올바른 順序일 것이다. 그러면 共產主義 乃至 共產國家의 長점은 무엇이겠는가. 不過數件의 글로서 이에 對한 答辯을 試圖한다는 것은 無謀하고 不當한 일일것이다. 그러나 知彼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우리는 敢히 이러한 無謀를 犯하려고 한다.

첫째, 共產獨裁下에서는 勤勞大衆의 勞働力이 相当히 酷使되고 있음은 事實이지만 原則적으로 失業이 없으며 社會保障制度가 漸次的으로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國民大衆은 飢餓線上을 彷徨하는 式的 極端的인 生活不安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둘째, 共產社會에는 富의 偏在 貧富의 큰 隔差는 있지 않으며



누구도 큰 蓄財를 할수는 없기 때문에 甚한 貧富의 隔差와 生活의 不平等에서 오는 民衆의 큰 社会的 政治的 不備는 大体的으로 없으며 金錢關係에 基因하는 不正腐敗도 原則的으로 存在하지 않는다.

세계 唯物論哲學을 내세우는 共產主義者들은 低俗한 唯物主義者로서의 一面을 갖고있지 않음도 아니지마는 저들은 同時に 精神主義的인 一面을 또한 具有한다. 「毛沢東思想」이 精神主義的인 一面을 갖고 있다는 것은 一部專門家들이 일찌기 看破한바있는 事實이며 青年 맑스의 所謂 「原始맑스主義」가 휴머니즘의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는 것도 一部 理論家들이 注目한바 있는 事實이다. 「매머니즘」과는 因縁이 먼 體制下에서 살고 있을 뿐아니라 思想的으로는 一 唯物主義的인 一面과 아울러 一 精神主義的인 一面을 갖고있는 共產主義者들은 때로는 精神主義的, 人道主義的 力量을 發揮할수도 없지 않은 것이다.

네째 共產主義者들은 個人의 価値를 極히 輕視하고 國家와 社會의 価値를 極히 重視하는 團體主義的인 教育을 實施하고 있기 때문에 青少年들이 卑俗한 個人主義=利己主義로 떨어지는 弊端을 防止할 수가 있다.

다섯째 強한 組織과 規律下에서 살고 있는 共產主義者들은 어느 程度 計劃的 能率的으로 일을 할수가 있다.

다음은 共產主義 乃至는 北韓共產集團의 弱點을 이야기 해야할 順序이지만 이것도 머리아플일이고 決코 손쉬운 일은 아니다.

첫째로 他人의 短点を 이야기 한다는 것은 우리의 性味에 맞지 않는 일이며, 둘째로 共產主義 乃至 共產勢力의 短점을 分析 檢討 究明한다는 것은 問題의 性格上 決코 簡單容易한 일일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하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問題삼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簡單한 解答을 試圖하지 않을수 없는 處地에 놓여있다. 그러면

共產主義 또는 北韓共產集團의 脆弱點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一般的으로 獨裁政權은 強한듯 하면서 脆弱한 性格을 갖는바 共產獨裁도 그것이 獨裁의 한 形態인 限에 있어서 亦是 一面의 脆弱性을 갖지않을수 없다.

둘째 北韓에서의 共產獨裁體制는 金日成의 「스탈린」의 一人獨裁體制이며 個人崇拜 即 一人偶像化가 無類적으로 極端化되어 있는이 一人獨裁體制는 많은 矛盾과 脆弱點을 內包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같은 共產國家라고 할지라도 自由化=民主化가 進步하고 있는 東歐諸國의 共產政權들은 그만큼 地位의 安定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諸國에서 「스탈린」에 依하여 權座에 올려 앉혀졌던 스탈린主義的 幹部들은 이미 거의 모두 權力의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지만) 權力維持에 對한 自信이 薄弱한 獨裁家일수록 國內에서는 더욱더욱 獨裁權을 휘두르고 또 國民大衆의 注意를 밖으로 돌리기 爲해서 對外的 冒險을 敢行하기도 한다. 北韓의 金日成 一黨이 挑發行爲를 頻繁히 恣行하는 것도 이와같은 理由에 基因하는 일일것이다.

세계 北韓 共產陣營 内部의 複雜한 派閥關係는 陰性化한채 어느 程度 그대로 남아있을 터인바 이와같은 對立的 派閥의 問題는 依然히 北韓 共產集團의 큰 内部的 脆弱點의 하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北韓 共產陣營에 關한 專門的 研究를 하는 사람等 北韓 政治 事情에 어느 程度 通曉한 사람이라면 거쪽 陣營 内部의 派閥싸움이 八·一五直後부터 얼마나 熾烈하게 繼續되어 왔던가를 知悉하고 있다. 한마디로 韓國(또는 北韓) 共產主義者라고 부를지라도 자들이 各各 所屬해 있는 派閥如何에 따라서 자들의 思想的 政治的 立場 乃至는 자들의 實踐的 行動에 있어서 까지도 懸隔한 差異가 있을수 있는 것이다.

네째 北韓의 金日成 集團은 國際 共產陣營 内部에서도 相當한 程度로 孤立되어 있을것이 틀림없는바 이것은 자들의 国内的 및 國際的 立場을 弱화시키지 않을수 없을 일이다. 어느나라의 知識人 共產主義者이건 金日成式의 超스탈린主義를 좋다고 느낄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金日成은 몇年前부터 所謂 自主路線을 標榜하고 있는바 오늘날 그가 「스탈린」時代에 比하여 훨씬더 큰 「自主性」을 갖고 있을 것은 틀림없지마는 그代身 그는 그當時에 比하여 모스크바와는 많이 멀어졌고 北京과도 그리 가까운 位置에 있다고 보아지지않기 때문에 事實上 그가 依賴할 수 있는 國際的인 힘은 훨씬 減少하였을 것이 틀림없을듯 하다.

다섯째 中·蘇紛爭이 極度로 惡化한 結果로 金日成과 그 一黨의 立場은 相當히 難處해졌을 것이 틀림없다. 北京과 「모스크바」에

兩다리를 걸침으로써 金日成은 어느程度 行動의 自由를 保障받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兩쪽과의 距離가 그만큼 벌어지지 않을 수 없음이 事實일진대 그의 마음과 地位의 不安定은 그만큼 커지지 않을 수 없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設使 金日成一黨이 無謀하게 第二의 六·二五를 挑發한다고 할지라도 北京과 모스크바는 그의 無謀한 挑發行爲를 制止하려고는 할망정 그의 挑發行爲를 援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金日成의 武力挑發 威脅을 크게 危險視하지 않아도 좋은 理由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知己도 必要하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긴 論述을 試圖할만한 餘裕를 갖고 있지 못한다. 우리가 大韓民國의 民主主義者로서 各自가 가슴위에 손을 얹고서 우리나라의 어제를 뒤돌아 보고 오늘을 눈여겨 보면서 冷靜하게 熟考하고 反省을 한다고 하면 「知己」라는 이 問題는 저절로 풀릴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만을 附言하기로 한다면 兪컨데 共產獨裁主義와의 競爭 乃至 鬪爭에서 勝利를 얻기 爲해서는 우리는 저들에 對해서 精神的 道德的 優位性을 確保할 必要가 있는바 우리가 이와같은 優位性을 確保할 必要가 있는바 우리가 이와같은 優位性을 確保堅持할수 있는 길은 우리가 誠心誠意로 民主主義의 精神과 原則을 살리고 實踐하는데 있는것이다. 獨裁家 「스탈린」의 別世以後 國際共產主義 自体가 「非스탈린化」 即 自由化, 民主化의 方向으로

漸次 性格變化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과 來日에 있어서 우리民族과 全体人類가 다같이 걸어가야 할길이 다름 아닌 참다운 民主主義라는 것을 証示하여주는 하나의 事實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七·四共同聲明의 精神과 內容은 반드시 그리고 忠實히 遵守되고 實踐되어야 한다.

同聲明에서 提示된 「祖國統一 三大原則」에 대하여 一言하기로 안다면

첫째의 「自主的 統一原則」에 대해서 異議를 말하려고 할 사람은 없을 터이지만 우리는 「自主的」이라는 이 用語를 너무도 偏狹하게 機械的으로 解譯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왜냐하면 「外勢」即 外部國際勢力의 積極的인 理解와 協助가 없이는 우리의 民族再統一成就是 現實的으로 不可能할 일이 아니겠는가.

세계의 原則 即 思想과 理念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한다는 祖國統一을 爲한 民族主義的 大原則을 우리는 雙手를 들어 歡迎한다. 왜냐하면 進步的 民族主義라는 共通的 基盤위에서서 南北雙方은 相互理解와 相互交流와 相互收斂에 힘쓸수있을 것이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漸進的인 同質化過程에로의 移行이 可能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韓半島問題는 國際化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에서 言及한 「自主的 統一原則」과 「民族主義的 大原

則」을 다같이 支持하면서도 우리의 民族再統一 問題는 우리들의 国内的 努力만으로서는 解決이 至難하거나 거의 不可能할 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南北對話等의 国内的인 努力과 並行하여 - 우리의 韓半島問題를 國際化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리하므로써 우리는 共產諸國을 包含하는 國際勢力的 協助를 얻어 金日成集團의 武力挑發을 牽制하고 또 이를 防止할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그러므로 우리는 蘇聯을 비롯한 共產諸國과의 接觸과 交流의 길을 트기 爲하여 知戀와 努力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의 祖國統一 運動은 國民化, 大衆化되어야 한다.

우리의 祖國統一 運動은 倭族의 性格을 띠는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南北의 一部 集權勢力에게만 이를 맡겨둘수는 없다. 祖國統一이라는 우리의 民族的至上課業을 올바르게 完遂하기 爲하여는 우리는 廣汎한 民族大衆을 基盤으로 하는 우리의 참다운 愛國的 統一勢力을 形成하고 強化하여야 하는바 우리의 民族再統一 課業을 責任져야 할 民族的主体勢力은 이와같은 愛國勢力을 中心으로 하여 形成組織되고 擴大強化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우리의 祖國統一을 爲한 努力은 漸進的 段階的으로 이루어질 것이 豫想된다. 그러나 元來 漸進的인 進化의 過程은 飛躍이라는 辯証法的 契機를 또한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祖國統一의 成就를 爲한 飛躍의 契機를 創出하기 爲한 努力도 이를 계을리하지 말아야하려니와 만일에라도 이와같은 飛躍의 機會가 나타날 境遇에는 우리는 이를 敏速 果敢히 捕捉活用하여 우리의

民族的 國上課業을 能히 成就할 수 있는 예지와 機敏性과 勇敢性을 充分히 發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의 祖國統一 = 民族統一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 - 이것은 우리를 加獲하는 神의 뜻이며 民族運命의 指示이며 民族意志의 命令이며 民族生存上의 絶對的 必要性일뿐 아니라 人類와 歷史에 對한 民族使命의 絶對的 要請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必成과 必勝의 信念을 가지고서 우리의 祖國統一 成就를爲하여 예지와 熱情과 勇氣를 기울여서 끊임없이 奮闘努力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